

민주, 원내교섭단체 구성 구체화하나

“국중당·정몽준과 연대 긍정적”

민주당의 원내 교섭단체 구성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어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이 원내교섭단체 구성에 성공한다면 추후 전개될 정계개편 구도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3일 김효석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중심당과는 원칙적으로 합의했고 정몽준 의원도 교섭단체 구성에 일단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며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몽준 의원과 국민중심당 의원이 참여한다 해도 교섭단체 구성 요건인 20석에는 아직 2명이 모자라는 상황이다.

민주당 12명, 국민중심당 5명, 무소속 정몽준 의원을 합친다해도 18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교섭단체 참여에 회의적인 무소속 의원을 최대한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정몽준 의원을 제외한 4명의 무소속 의원 가운데 국회의장인 임

일부 무소속 설득·與 호남의원 물밑 접촉 성공면 정계개편 구도 상당한 변화 불가피



김효석 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야재비 적정화 방안 정책 간담회’에서 보건복지부, 대한약사회 등 관계 기관 전문가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채경 의원과 ‘여기자 선출행’ 사건하고 권선택, 박성범 의원 등을 공략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권 의원은 교섭단체 참여에는 명분이 필요하며 일단 신중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공천 파동으로 한나라당을 탈당한 박성범의원도 교섭단체 구성 참여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열린우리당 내의 호남 또는 수도권 의원을 영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수도권 의원 영입이 지역당이라는 이미지 보완에 장점이 있는 만큼 여당 수도권 의원을 대상으로 물밑 접촉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일단 민주당과 국민중심당, 정몽준 의원을 합한다면 18석 정도는 확보될 것 같다”며 “그러나 교섭단체 구성 요건인 20석에 2석 정도 모자라는 상황이므로 열린우리당 내의 호남 출신 의원들과의 접촉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일단 민주당과 국민중심당, 정몽준 의원을 합한다면 18석 정도는 확보될 것 같다”며 “그러나 교섭단체 구성 요건인 20석에 2석 정도 모자라는 상황이므로 열린우리당 내의 호남 출신 의원들과의 접촉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준영지사(민주당) 이번엔 우리당 방문

한나라 방문이어 ‘예산확보 행군’ 여수박람회·F1특별법 지원 확답

지역현안 예산확보에 나선 박준영 전남지사의 길은이 바빠졌다.

박 지사는 3일 기획예산처와 열린우리당을 방문하고 지역 현안추진을 위한 정부예산 반영과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등을 건의했다.

박 지사는 이날 장병관 기획예산처장관을 방문, 2007년도 정부예산에서 목포~광양 고속도로 건설 계속사업비 1천500억원, 광주~완도 고속도로 건설 기본 및 실시설계비 200억원, 여수 국가산단 진입도로(광양~묘도~여수) 개설 500억원 지원 등을 건의했다. 또 전라선(익산~순천) 복선 전철화 계속사업비 1천억원, 무안국제공항 2008년 개항을 위한 마두리 사업비 360억원 등도 내년 정부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장 장관은 “전남의 낙후도와 지역 균형발전,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등의 시급성을 고려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박 지사는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과 면담을 갖고 F1대회 지원 특별법 제정에 대한 협조와 함께 서남해안 관광대도지 조성 개발에 따른 간척지 조기 양도, 내국인 카지노



박준영 전남지사가 2일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을 만나 F1대회 지원 특별법 제정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허용,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등을 건의했다. 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F1대회 지원 특별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적극 지원하겠다”며 “전남은 섬이나 해안선 등 해양관광의 비교우위가 있으므로 이를 개발하는데 협력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소속인 박 지사는 지난달 20일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를 만난 데 이어 이날 우리당을 방문 지역발전 등을 위해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 눈길을 끌었다.

/박지경기자 unipark@kwangju.co.kr

“與의원은 난파선 쥐며”

주성영의원 발언 논란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2일 열린 우리당 의원들을 위협이 다치면 타고 있던 배를 버리고 떠나는 ‘난파선의 쥐며’에 비유해 논란이 예상된다.

주 의원은 당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역풍으로 엉겁결에 당선된 여당 의원들을 일명 ‘탄둥이’라고 한다”며 “이들 탄둥이들이 탄핵 역풍에 무임 승선해 배에 가득 실린 달콤한 권력을 나눠먹을 땐 ‘우리 선장님’을 합창하더니 침몰 조짐이 보이자 자기만 살리고 선장을 비난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그는 “탄둥이들이 그간 노 대통령에게 그토록 ‘애정’을 보이다 이제 책임을 대통령에게 몽땅 떠넘기고 자신들만 빠져나가려는 것은 자기만 살자는 욕심 때문”이라며 “조직이 붕괴된 가장 먼저 빠져나가는 사람을 보고 ‘난파선의 쥐 같다’고 비유한다”고 여당 의원들을 겨냥했다.

이에 대해 우리당 우상호 대변인은 “국민에게 정치 혐오감을 부추기는 저질스러운 글에 일일이 대응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 주 의원의 자신의 글에 대한 비판이 결국 본인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민기자 man21@kwangju.co.kr



민주당 소속인 나정숙(가운데) 서구의회 의장이 3일 오후 광주시의회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중앙당과 광주시당의 부당한 간섭을 비판하고 있다.

“제명 결정은 당의 오만과 독선”

나정숙 광주 서구의장 “중앙당에 제심 요청”

시민단체에도 반발·파문 확산

나정숙 광주 서구의회 의장은 3일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 중앙당 윤리위원회의 제명 결정에 대해 ‘부당한 징계’이자 광주시당의 ‘오만과 독선’이라며 이의신청을 하기로 하는 등 강력 반발했다.

특히 광주시민단체협의회까지 나 의장의 제명에 대해 ‘정치적 폭력’이라고 반발하고 나서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나 의장은 이날 오후 광주시의회 기자회견에서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소속 서구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

을 갖고 자신을 제명한 중앙당 결정에 대해 “타당 소속 의원들과 사전 담합한 바가 결코 없으며 당론이 없었는데도 당론을 어겼다고 억지 징계를 한다면 민주당이 아니다”며 “제명 철회를 위해 중앙당에 제심을 요청하겠다”고 반박했다.

나 의장은 또 “광주시당은 원칙없는 운영으로 지방의회에 부당한 간섭을 일삼아 시의회를 비롯한 여러 구의회의 파행을 자초하고 있다”며 “민주당 유종필 광주시장 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당직자들의 오만과 독선을 가까에서 지켜볼 수 밖에 없어 참담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작전권 환수해도 미군 철수 없다”

윤광웅 국방장관

윤광웅 국방장관은 3일 “한미는 유사시 압도적인 미군 증원전력의 전개에 전제조건으로 전작권 전환을 합의한 한국군 단독행사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방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전작권이 환수되면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유사시 증원전력 전개도 보장할 수 없다는 일각의 우려는 맞지 않다”면서 그 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한미가 합의 중인 전작권 전환의 한국군 단독행사 로드맵에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해 주한미군 주둔은 지속하고 유사시 압도적인 미 증원전력이 전개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버벌 벨 한미 연합사령관과 미국

국방부도 이를 여러 차례 확인했다고 그는 덧붙였다.

윤 장관은 “전작권 환수 로드맵 작성에 대한 약정서(TOR : Terms of Reference)에 현행 대비 태세 및 역제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유사시 증원전력 전개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 윤 장관은 “야속을 이행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어떤 협조라인을 구성할 지에 대한 밑그림이 그려져 있다”고 강조했다.

작전권 환수 시기와 관련, 윤 장관은 “예초 2010년 쯤이면 작전권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2012년에 이르면 더 안전하지 않겠느냐는 판단을 했다”고 말해 한미가 오는 2012년을 목표로 작전권 환수 로드맵을 구성하고 있음을 강력히 시사했다.

/연합뉴스

“희망연대” 28일 발기인 총회

“생활정치 정착 새 패러다임 모색”

고건 전 국무총리가 주도하는 ‘희망한국국민연대’(희망연대)는 3일 “생활정치의 정착으로부터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희망연대는 이날 시내 한 식당에서 창립준비위원회를 열고 향후 활동방향과 관련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김택모 전 총리공보수석이 전했다.

희망연대는 특히 ▲생활환경에서 갈등 해소, 가치창출, 희망 창출의 사례를 찾는 희망의 불씨 찾기 운동 ▲희망 한국 의제 만들기 운동 ▲새정치 찾기 운동 등 4가지 운동에 초점을 맞추

기로 했다. 희망연대는 또 수해 때문에 연기를 연기한 발기인총회 일정을 8월28일로 확정했다.

이와 함께 희망연대는 발기인으로 유력한 창립준비위원 명단을 공개했다.

창립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종훈 전 경실련 공동대표를 비롯해 박연철 전 민병 부회장과 김용정 다산연구소 대표, 민주당 비례대표 출신인 황창주 전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등 각계 전문가 23명이 명단에 포함됐다.

/최진민기자 man21@kwangju.co.kr

Naeyoung Institute advertisement. Title: 'Naeyoung Institute' (곽내영고시학원). Subtitle: 'Education experts are also worried about the gap.' (교육임용 강좌에도 질적 차이가 있습니다.) Lists various courses like English, Education, Accounting, and more.

Police Academy advertisement. Title: 'Police Academy' (경찰의 꿈을 이룩하는 곳! 김재규 경찰학원). Subtitle: 'Passing the exam is the next step' (합격의 전당 광주 김재규경찰학원이 노랑진의 합격 신화를 이어갑니다). Promotes training for police officers.

Mudeung Institute advertisement. Title: 'Mudeung Institute' (무등고시학원). Subtitle: 'Public Service Exam 2nd Round' (공무원 여름방학 2차개강). Promotes exam preparation for public service jobs.

Solar House Development advertisement. Title: 'Solar House Development' ((주)태양주택개발). Subtitle: 'Waterproofing and insulation services' (지붕·옥상슬라브 우레탄폼 방수전문). Lists services for waterproofing and energy efficiency.

Police Academy advertisement (continued). Title: 'Police Academy' (경찰의 꿈을 이룩하는 곳! 김재규 경찰학원). Lists various courses and training programs.

Kim Young-ho advertisement. Title: 'Kim Young-ho' (김영호). Subtitle: 'Advanced medical education' (상위권 대학편입 전문 - 김영호). Promotes medical education and exam preparation.